



(미국사무소, 2026 August)

1 과학기술 R&D · ICT 연구 동향

1) 과학기술 R&D · ICT 분야

□ 다이아몬드 용융 실험, 핵융합 에너지 증대 가능성 제시

-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 연구진이 초고압 · 고온 환경에서 다이아몬드가 녹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규명했음. 연구 결과는 Nature Physics에 게재됐음.
- 연구진은 레이저 충격압축 기술을 이용해 미세한 다이아몬드 시료에 극한의 압력과 온도를 가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이아몬드의 용융 특성을 측정했음.
- 실험 결과 다이아몬드는 약 0.6~1.1 TPa(600~1,100 GPa)의 압력 범위에서 녹으며, 고압에서는 고체 다이아몬드보다 밀도가 높은 금속성 유체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실험에서 확인된 다이아몬드의 용융 특성이 양자역학에 기반한 제1원리 계산 결과와 잘 부합하면서, 극한 환경에서 탄소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예측을 실험적으로 뒷받침했음.
- 이번 연구는 천왕성 · 해왕성과 같은 거대 얼음행성 내부에서 탄소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는 이른바 ‘다이아몬드 비’ 가설을 뒷받침하며, 이들 행성의 내부 구조와 탄소의 거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함.

※ <https://phys.org/news/2026-08-diamond-triple-fusion-gain-secrets.html>

□ 패스키(Passkey) 보안 도구, 학대 피해자 보호에 허점 노출

- 코넬대 연구진이 가정폭력 ·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학대 상황에서 패스키(passkey)가 가해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 USENIX 보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패스키는 비밀번호보다 안전한 로그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대방의 기기와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가해자가 자신의 패스키를 몰래 등록해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양한 기술 수준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다수 참가자가 자신의 계정에 몰래 등록된 패스키를 발견·제거하거나 계정을 다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스스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주요 서비스의 패스키 관리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불명확해, 친밀한 관계 내 학대 피해자가 계정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 연구진은 이용자가 계정 침해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서비스가 패스키 관리 및 계정 보안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techxlore.com/news/2026-08-reveals-gaps-passkey-tools-abuse.html>

□ AI 신경망 구조 확장으로 연속적 과학 문제 해결 가능성

-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tech)과 엔비디아(NVIDIA) 공동 연구진이 기존 AI 신경망 구조를 연속함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음.
- Nature Machine Intelligenc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고정된 격자 형태의 이산 데이터 간 관계를 학습하던 기존 신경망을, 물리계가 시공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학습하는 ‘신경 연산자(neural operator)’로 확장하는 원리를 제시했음.
- 연구진은 날씨와 같은 물리 현상을 정확히 다루기 위해서는 위성 관측지점이나 특정 측정 지점의 데이터뿐 아니라, 관측지점 사이의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상까지 표현할 수 있는 신경망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연구진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데이터를 연속 시스템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AI 기술을 과학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음.

※ <https://techxlore.com/news/2026-08-ai-architectures-scientific-problems.html> #goog_rewarded

□ 폐 상주 세균 100년 통념, 최신 연구로 뒤집혀

- 미시간대 연구진이 폐에 흔히 존재하는 세균 ‘프리보텔라 멜라니노게니카(*Prevotella melaninogenica*)’의 산소 반응에 관한 기존의 100년 된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Journal of Bacteriology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실시간 센서 플랫폼과 RNA 시퀀싱을 활용해 프리보텔라가 산소를 소비하며, 산화 스트레스와 DNA 손상에 대응하는 방식이 기존에 알려진 다른 호기성 세균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 연구진은 세균의 산소 반응이 기존처럼 산소 이용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인체에는 장, 구강, 폐, 피부, 비뇨생식기 등에 35조 개 이상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물학적 특성과 기능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
- 연구진은 향후 면역체계가 프리보텔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폐의 세균 군집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https://phys.org/news/2026-08-overtake-year-assumption-common-bacteria.html>

□ 대규모 인간 암 모델 구축, 정밀 항암 치료 연구 가속화

- 미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해외 협력기관이 참여한 인간 암 모델 이니셔티브(HCMI)가 환자 유래 종양 모델 665종을 구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10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2,780명의 환자로부터 25개 암종에 걸친 차세대 실험실 모델을 확보했으며, 각 암종의 주요 유전자 변이를 대부분 포함하는 국제적 연구 자원을 구축했다.
- Nature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종양과 모델 421쌍을 분석한 결과, 장기간 실험실 배양 후에도 유전자 변이 일치율 97.8%, 후성유전학적 특성 일치율 95%, RNA 발현 패턴 유사도 92%를 기록해 원래 종양의 분자적 특성이 잘 보존되는 것을 확인했다.
- 전체 모델 중 522종은 미국형 배양 수집소(ATCC)를 통해 유전체·전사체·후성유전체·임상 데이터와 함께 과학계에 폭넓게 제공될 예정이다.
- 연구진은 이번에 구축한 모델이 환자 유래 종양 모델과 상세한 분자·임상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 치료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https://www.nih.gov/news-events/news-releases/human-cancer-models-accelerate-research-precision-therapies>

2) 인문·사회분야

□ 급변하는 AI 교육 도구 뒷받침 연구 방법론 혁신 필요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교실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AI 도구의 효과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원칙을 제시했다.
- 현재 교사 3명 중 2명이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구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방식은 빠른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필자들은 AI 도구의 모델과 프롬프트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동일한 개입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기존 평가 방식의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실행 연구개발(Implementation R&D)’은 대규모 평가에 앞서 AI 도구의 설계·전달·활용 방식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개선하는 방식임.
- 특히 AI 도구는 실시간 사용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작업 관찰이나 코딩 없이도 특정 설계 요소가 실제 사용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음.

※ <https://www.brookings.edu/articles/ai-is-rapidly-changing-education-and-research-needs-to-keep-up/>

□ 습관적 인터넷 검색과 업무 집중도 저하의 상관관계

- 텍사스 A&M대 연구진이 업무 시간 중 부정적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덤스크롤링(doomscrolling)’이 단순한 시간 낭비를 넘어 이후 업무 몰입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Computers in Human Behavior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업무 중 덤스크롤링은 부정적인 콘텐츠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업무 몰입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관성은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덤스크롤링에 소비한 시간 자체보다 이후 지속되는 심리적 여파가 업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연구진은 덤스크롤링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집이나 카페, 라운지 등 스스로 허용한 장소와 시간에만 하는 방식으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함
- 덤스크롤링은 특히 18~35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조직 행동과 직업 건강심리학 관점에서도 주목받는 현상으로 꼽혔음.

※ <https://phys.org/news/2026-08-doomscrolling-real.html>

□ 온라인 부정성 확산의 새로운 동인 발견

- 시카고대 등 공동 연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부정적 담론이 확산하는 원인이 주목을 유도하는 알고리즘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하려는 이용자의 욕구에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PNAS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레딧(Reddit) 커뮤니티 2,150 곳에서 수집한 약 20억 5천만 건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대화가 이어질수록 댓글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확인했음.
- 연구진은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하려 할수록 부정적 발언을 선택하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 예를 들어 영화에 대한 긍정적 댓글에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기 어렵지만, 부정적 댓글은 영화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번 연구는 온라인 대화가 길어질수록 나치나 히틀러에 대한 비유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고드윈의 법칙(Godwin’s Law)’에서 착안했으며, 일상적인 대화와 달리 온라인에서는 화제를 전환하기 어려워 대화가 지속될수록 부정성이 누적될 수 있다는 구조적 특성을 지적했다.

※ <https://phys.org/news/2026-08-algorithm-online-negativity-life-users.html>

□ AI 활용 연구 제안서, 높은 선정률 불구 한계 노출

-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AI를 활용해 작성한 연구 제안서가 연구비 지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미국 국립학술원회보(PNA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AI 작성 흔적이 강한 연구 제안서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심사에서 그렇지 않은 제안서보다 선정 확률이 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AI 활용도가 높은 제안서일수록 기존에 이미 연구비를 지원받은 아이디어와 더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 연구진은 과학 정책의 핵심 과제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한 누적적 발전과 비전통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탐구적인 연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 선정된 연구 과제들은 이후 발표한 논문 수는 더 많았지만, 피인용도가 매우 높은 이른바 ‘히트 논문’ 수는 증가하지 않아 AI 활용이 연구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획기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음.

※ <https://phys.org/news/2026-08-ai-grant-narrowing-ideas.html>

□ AI 동반자와의 결혼, 법 제도적으로는 시기상조

- 하버드대 연구진이 향후 초지능 AI 동반자에게 혼인 관계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논문을 발표했다.
- arXiv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사생활 보호, 의료 의사결정, 돌봄 등 일부 영역에서 인간-AI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혼인 제도 자체는 인간 고유의 제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구진은 혼인이 단순한 개인 간의 사적 합의가 아니라 상호 의무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가족을 결합하며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라는 점에서, 인간과 AI의 관계가 이를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특히 AI 동반자는 인간과 달리 혼인을 통해 결합할 자신의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인간 간 혼인과 인간-AI 혼인 사이에는 근본적인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AI를 배우자나 동거인 등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AI와의 정서적 유대가 확산하면서 관련 법적 지위와 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음

※ <https://techxplore.com/news/2026-08-people-ai-agents.html>

2 과학기술 R&D · ICT 정책 동향

1) 과학기술 R&D · ICT 분야

□ 트럼프 행정부 새 과학 전략, 美 연구개발 체계 재편 예고

-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신규 과학기술 정책 문서 ‘Science: A New Golden Age’와 관련 예산 지침이 미국의 연구개발 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음.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과 관리예산국(OMB)이 함께 발표한 이번 문서는 대학 연구비의 간접비 비율 축소, 민간·지방정부와의 비용 분담 의무화, X-Lab·집중연구조직(FRO) 등 비대학 연구 기관 확대를 통해 기존 대학 중심의 연구비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방향을 담고 있음.
-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전문가들은 장기 보조금, 프로젝트가 아닌 인재 중심의 투자, ‘골든 티켓’ 심사제 등 최근 ‘과학의 과학(science of science)’ 분야에서 논의된 다양한 연구지원 혁신 방안을 포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다만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는 등 대규모 예산 축소와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음.
- 특히 국립보건연구원(NIH) 등 주요 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고위 정무직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개편안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AI 모델의 성능 격차도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략이 이러한 경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음.

※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how-will-trumps-new-science-strategy-change-us-research/>

□ 미 국방부 연구 보안 정책 강화, 문제기관 대폭 확대

- 미 국방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 활동 관여 해외 기관’ 목록을 발표했다.
- 이 목록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제1286조에 따라 매년 발표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중국·러시아·이란 소재 학술·연구기관 130곳이 새롭게 포함됐음.
- 해당 기관들은 미국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될 위협을 높이는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활동은 적대적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져 미국의 국가 안보와 과학적 진실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음.
- 국방부는 미국 내 연구자와 학술기관, 산업계 파트너들에게 명단에 포함된 기관과 협력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음.
- 이번 조치는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와 지식재산권 도용으로부터 기초연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가 최근 마련한 강화된 규정과도 같은 맥락에 있음.

※ <https://www.war.gov/News/Releases/Release/Article/4553101/the-department-of-war-releases-updated-list-of-foreign-institutions-engaging-in/>

□ 미 상원, OMB 연구비 규정 보류 임시예산안 통과

- 미국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이 추진 중인 연방 연구비 지원 규정의 확정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항을 포함했음.
- 해당 규정안은 정무직 임명자에게 연구비 지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진행 중인 연구비 지원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상원 세출위원장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이처럼 많은 반대 의견이 접수된 규정안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음.
- 민주당 의원 전원은 해당 규정안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해 왔음.
- 다만 상원의 임시예산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하원이 별도로 통과시킨 임시예산안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하원의 상원안에 대한 수용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임

※ <https://www.aip.org/fyi/senate-passes-stopgap-funding-bill-blocking-omb-grantmaking-rule>

□ 미 국립과학재단, 주·지역별 ‘AI 인프라 허브’ 신설

-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지역 단위에서 AI 연산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NSF 주·지역 AI 인프라 허브(AI Infrastructure Hubs)’ 프로그램을 발표했음.
- 이번 프로그램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 ‘Science: A New Golden Age’의 핵심 권고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첨단 과학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데이터 등 AI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NSF는 우선 주·지역별로 1곳씩 최대 10개의 허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허브가 지역 산업계와 협력해 지역 고용시장 수요에 맞는 AI 인력을 양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엔비디아(NVIDIA), AMD, 인텔(Intel), 델(Dell) 등 다수의 민간기업과 자선단체가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NSF가 주도하는 ‘국가 AI 연구자원(NAIRR)’ 등 기존 국가 인프라와도 연계될 예정임.

※ <https://www.nsf.gov/news/new-nsf-state-regional-ai-infrastructure-hubs-will-power-ai>

□ 미 정부, IAEA와 신규 해양원자력 이니셔티브 ‘ATLAS’ 출범

- 미국이 2026년 8월 워싱턴D.C.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신규 이니셔티브인 ‘해양용 원자력 기술 인증(ATLAS)’ 출범을 위한 장관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음.
- ATLAS는 원자력 기술을 해양 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규제적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술 중립적 접근을 바탕으로 안전·보안·비확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미 에너지부(DOE)는 8월 25일 별도의 ‘산업의 날’ 행사를 열어 미국의 주요 원자력·해양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임.
-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ATLAS 출범 행사 개최가 미국의 에너지 우위 확보와 혁신 가속화라는 핵심 임무를 뒷받침하고, 미국 원자력·해양 산업을 첨단 에너지 혁신의 최전선에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https://www.energy.gov/articles/united-states-host-international-atomic-energy-agency-launch-new-maritime-nuclear>

2) 인문 · 사회분야

□ 미 국립인문기금(NEH), 인문학 프로젝트 81건 지원

- 미 국립인문기금(NEH)이 전국 81개 인문학 프로젝트에 총 4,14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주요 지원 대상에는 노아 웹스터의 1806년 · 1828년 사전 온라인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도서관의 신규 상설 전시 조성,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 창작배경을 다룬 저서 집필 등이 포함됐음.
-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781년 요크타운 전투 당시 침몰한 해양 유물 보존 등에 총 1,340만 달러를 지원함.
- 인디애나대와 우드로윌슨센터의 협력사업에는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학술 모임 · 출판 · 팟캐스트 제작 등에 600만 달러가 지원되며, 이는 2025년 1월 발표된 반유대주의 대응 행정명령 이행의 일환임.
- 이 밖에도 4,000년 전 이집트 선박 유물 연구, 13~17세기 법정 기록에 사용된 양피지의 DNA 분석을 통한 중세 농업사 · 질병사 규명, 역사 신문의 디지털화 사업 등에 예산이 배정됐음.

※ <https://www.neh.gov/news/neh-announces-414-million-81-humanities-projects>

□ 미 국립과학재단, 4년제 산학 연계 박사과정 시범 사업 착수

-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산업체 연구개발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4년제 박사학위 모델의 시범 사업에 향후 5년간 4,7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 약 30개 대학과 민간기업의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 25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에게 산업체 현장에서 학위논문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NSF는 공학 · 물리과학 · 컴퓨터 · 정보과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취업 계획이 확정된 인원의 65% 이상이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박사과정은 여전히 학계 진출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사업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음.
-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달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발표한 보고서 ‘Science: A New Golden Age’ 에서 권고한 신진 연구자

지원 강화와 산학연 연계 연구 경험 확대 방침을 구체화한 것임.

- ‘대학-산업 실행 파트너십(UIDP)’ 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박사과정 1년 차에는 대학이 재정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NSF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산업계 파트너는 최소 1년간 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학위논문 연구 비용을 매칭 지원하며, 학생들은 학계와 산업계 멘토의 공동 지도를 받게 됨.

※ <https://www.nsf.gov/news/nsf-partners-universities-industry-pilot-initiative-four>

□ 미 인문학센터(NHC), 2026-27 교사자문위원 위촉

- 미 인문학센터(National Humanities Center, NHC)가 전국 14개 주에서 활동하는 교육자 20명을 2026~2027년 교사자문위원회(Teacher Advisory Council)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교사자문위원회는 NHC가 교실 수업 자료와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평가·홍보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으로,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 다양한 교육 현장의 교사와 교수진이 참여했음.
- NHC 교육프로그램 담당자는 자문위원들이 전국의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웨비나와 1차 사료 자료집 등 센터의 교육 콘텐츠가 교육학적으로 타당하고 다양한 교실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 NHC는 인문학 분야의 심층 연구를 지원하는 독립 연구기관으로, 약 50년간 대학 및 대학 이전 단계의 인문학 교육자들에게 최신 학술 연구 성과와 콘텐츠 기반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해 왔음.

※ <https://nationalhumanitiescenter.org/nhc-names-2026-27-teacher-advisory-council/>

□ 미 사회과학연구위(SSRC), 일본-글로벌 협력연구 5개 팀 선정

-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SSRC)가 일본국제교류기금 뉴욕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미·일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 5개를 새롭게 선정해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사업은 SSRC와 일본국제교류기금이 30여 년간 이어온 미·일 학자간 협력 연구 파트너십인 ‘아베펠로우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기존 펠로우와 신진 연구자를 연계해 새로운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임.

- 미치코 우에다 교수팀은 일본·미국·영국의 돌봄 지원체계를 비교하고, AI 등 신기술이 고령화 사회의 돌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 에이미 캐털리낙 교수팀은 일본을 사례로 유권자가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포퓰리즘·극우·반이민 성향으로 이동하는 조건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정책이 일본에서 이러한 흐름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https://www.ssrc.org/news/2026/08/10/2026-japan-global-network-collaborative-grant-awardees/>

□ 하버드대 사회과학 부문 최대 규모 감원

- 하버드대文理대(FAS)가 사회과학 관련 부문 교직원 75명을 해고하며,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음.
- 하버드 크림슨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해고 규모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사회과학 부문 직원의 약 30%에 해당함.
- 사회과학부의 구조조정 대상 직위 216개 가운데 65개가 직접 감축됐으며, 행정 코디네이터 직위는 9개 중 7개, 교수 보조·지원 관련 직위는 30개 중 22개가 줄어드는 등 행정·지원 인력에 감축이 집중됐음.
- 이번 구조조정은 약 3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추진됐으며, FAS는 인사·재무 등 행정 기능을 통합하고 개별 학과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여러 학문 단위를 아우르는 연합형 조직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 FAS는 현재까지 총 5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약 740개 직위 중 190개 직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공계열과 인문계열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 <https://www.thecrimson.com/article/2026/8/11/fas-social-sciences-layoffs/>

□ 미 국립과학재단 소재 혁신 플랫폼 2곳 신설

-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신규 소재 혁신 플랫폼(Materials Innovation Platform) 2곳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 텍사스와 위스콘신에 각각 신설되는 플랫폼은 향후 6년간 NSF로부터 2,500만 달러씩 지원받으며, 학계 · 산업계 연구자들에게 첨단 연구 장비를 개방하고 AI 기반 자율 실험 기능도 구축할 예정이다.
- 텍사스 A&M대에 들어서는 ‘NSF ARM-MIP’는 로봇공학과 AI를 결합한 자율 실험실로, 연료 효율을 높인 제트 터빈, 장갑차용 장갑 소재, 원자로용 내방사선 소재 등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에 들어서는 ‘NSF MATRIX-MIP’는 AI를 활용해 신소재의 물성을 예측하고, 고속 합성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 ·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기존 ‘2D 크리스털 컨소시엄’ 플랫폼에는 46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 향후 자립형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 <https://www.nsf.gov/news/nsf-stands-2-materials-innovation-platforms-50m-investment>

□ 미 에너지부, 핵심광물 인력양성에 1억 달러 투자

- 미 에너지부(DOE) 산하 핵심광물 · 에너지혁신국(CMEDI)이 미국 내 핵심광물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최대 1억 달러를 투자하는 ‘PROSPECT(핵심기술 특화 교육 기회 제공)’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사업은 미국 내 핵심광물의 생산 · 가공 · 회수 · 재활용을 뒷받침할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단기적으로는 향후 2년 내 광업 · 광물 및 관련 공급망 기술 분야의 학위 취득자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 도구,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핵심광물 분야로의 인재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에너지부는 향후 10년간 광업 분야에서만 약 6,000명의 신규 엔지니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재과학·가공·재활용 분야의 인력 부족도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energy.gov/articles/energy-department-launches-100-million-initiative-build-americas-critical-minerals>

□ AI가 미국 창업 붐 촉매, 소기업 중심 경제 재편 가속

- 미국에서 챗GPT 출시 이후 신규 창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창업 침체가 끝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자료를 인용한 시타델 증권(Citadel Securities)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신규 사업자등록 건수는 560만 건으로 챗GPT 출시 이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타델은 AI 도입이 확산된 이후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평균 직원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했지만, 신규 창업 증가가 개별 기업의 낮아진 노동집약도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음.
- 시타델은 이러한 변화의 혜택이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크게 돌아갈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AI가 전문인력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효율 규모 자체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https://www.nytimes.com/2026/07/17/business/economy/american-small-business-boom.html?searchResultPosition=4>

□ 앤스로픽, 이스라엘 AI 스타트업 데카트(Decart) 인수 협상

-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이스라엘 AI 스타트업 데카트(Decart AI)를 약 6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협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결렬될 가능성도 있지만, 성사될 경우 앤스로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전망이다.
- 2023년 설립된 데카트는 AI 연산 효율을 높여 학습·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월드모델’을 개발해 왔음.
- 인수가 성사되면 데카트 팀은 앤스로픽의 추론·성능(inference and performance) 조직에 합류할 예정이며, 이번 인수는 급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앤스로픽의 기존 컴퓨팅 인프라 활용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8-13/anthropic-said-in-talks-to-buy-ai-startup-decart-for-6-billion>

□ 지식재산 집약 산업, 전체 GDP 44%·고용 33% 차지

- 미 특허청(USPTO)이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한 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in 2024’를 발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기술·경영·행정서비스업 등 128개 IP 집약산업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4%에 해당하는 11조 4,000억 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산업은 4,960만 명을 직접 고용해 전체 고용의 33%를 차지했으며, IP 집약산업의 매출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의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고용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특히 정보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IP 집약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매출의 90% 이상과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했음.
- 또한 IP 집약산업 종사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지난 10년간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ip-intensive-industries-provide-better-paying-jobs-employ-one-third-total>